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보도 일시	2022. 11.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11. 25.(금)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	책임자	팀장 이동혁 (044-203-2791)
		담당자	사무관 신효심 (044-203-3147)

씨름, 한국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 11.25. '케이-씨름'의 새 미래를 열 '케이(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발족 -

-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인제대 교수, '씨름의 희열' 연출 박석형 피디 등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케이-씨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진흥 방안을 논의할 「케이(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서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되었으나, 2000년 초반 이후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의 쇠퇴로 침체기를 겪어 왔다.

문체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K-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씨름의 전통과 품격 제고', '씨름의 저변 확대', '씨름의 세계화', '씨름의 매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증을 통해 민속씨름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씨름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 씨름의 저변 확대와 기술씨름의 부활을 위해 현재의 '백두', '한라', '금강', '태백' 등 4체급에 경량급 1체급을 추가하여 5체급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조용만 제2차관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씨름연구소 박승한 소장과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비롯해 전직 씨름 선수인 이기수 트라스포엔터 대표, 송송화 대한씨름협회 이사,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을 연출한 한국방송(KBS) 박석형 피디,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 씨름단 감독, 마케팅 및 전통의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로서의 씨름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품격을 높여, 씨름이 매력 있는 국민스포츠로서 일상 속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K-씨름의 미래를 열 실효성 있는 씨름진흥 방안 마련

○ (위원구성) 씨름인, 씨름단 및 씨름협회 관계자, 학계·미디어 등 관련 전문가 15인 내외의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

○ (운영기간) '22. 11월 ~

○ (주요역할) 씨름 진흥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도출

□ 위원 구성 (1차 회의)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관계 기관 (4명)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승한	한국씨름연구소 소장(前 영남대 교수)
	이준희	대한씨름협회 경기운영본부장
	김태완	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스타 선수 (3명)	이만기	인제대 교수(스포츠헬스케어학과)
	이기수	트라스포엔터 대표이사
	송송화	대한씨름협회 이사
씨름단 관계자 (3명)	김송환	구례군청 여자씨름단 감독
	이대진	울주군청 씨름단 감독
	김민규	청양초 씨름부 감독
학계 (2명)	이태현	용인대 교수(무도스포츠학과)
	김도균	경희대 교수(스포츠마케팅, 국제스포츠)
방송/ 마케팅/ 전통의례 (3명)	박석형	KBS PD(KBS 씨름의 희열)
	김명준	올댓스포츠 상무
	곽낙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연구원